몸에 좋은 수삼, 판로 UP

전북농협, 직거래 장터 개최

전북농협과 전북인삼농협은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건강에 좋은 국산 수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지난 22일 농협 하나로마트 전주점에서 '봄맞이 수삼으로 원기회복!' 소비촉진 이벤트를 실시했다.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전북인삼농협(조합장 신인성)은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건강에 좋은 국산 수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지난 22일 농협 하나로마트 전주점에서 '봄맞이 수삼으로 원기회복!' 소비촉진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재호 본부장, 신인성 조합장, 정미경 진안군지부장, 인삼농가 등이 참석해 내방 고객을 대상으로 수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삼 쉐이크 시식 및 수삼 판매를 위한 판촉활동 등을 진행했다.

전북농협은 이번 이벤트를 시작으로 오는 5월 1일까지 10일간 수삼 할인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 100g당 원삼류(몸통이 굵고 가지런한 모양)는 6,500원, 난발류(자유롭고 다양한 모양)는 4,900원에 판매하며 소비자는 원하는 만큼 비닐봉지에 담을 수 있고 10만 원 이상 구매 시 삼계탕 재료 또는 홍삼비타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병행한다.

신인성 조합장은 "수삼 가격하락으로 힘든 인삼 농가를 돕기 위해서 이번 직거래 장터를 기획하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인삼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호 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축제가 취소되고 면세점 인삼 판매가 급감하는 등 소비부진이 계속되어 재고는 쌓이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 갈수록 높아지는 인건비와 생산비가 인삼농가를 더욱 괴롭히고 있다"면서 "환절기 건강관리에 좋은 인삼을 통해 면역력도 올리고 지친 피로도 물리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인삼류 재고액은 1조9,000억원(KGC인삼공사 1조1,818억원, 인삼농협·농협홍삼 2,972억 원, 일반 업체와 농가 4,000억원)으로 인삼종주국 위상을 지키기 위한 판로개척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전북농협은 계통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직거래장터를 수시 개최하고 온라인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여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임직원 인삼 특판 행사, 사무실 내 인삼차 마시기 캠페인 등을 전개해 다방면으로 소비 촉진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신일, '완주 이서 신일 해피트리' 견본주택 오픈

서부신시가지와 인프라 공유

내달 2일 특별공급
3~4일 1~2순위 청약
입주는 내년 9월 예정

'완주 이서 신일 해피트리' 조감도

㈜신일은 22일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일대에 들어서는 '완주이서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완주이서 신일 해피트리는 지하 1층~지상 15층 7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330가구로 구성된다. 타입 별로는 59㎡A 192가구, 59㎡B 18가구, 74㎡ 36가구, 84㎡ 84가구이다.

청약일정은 5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청약, 4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비(非)규제지역 아파트로 완주군 및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예치금 200만원이 충족되면 주택 수 및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공급물량의 40%는 가점제, 60%는 추첨제이다.

완주이서 신일 해피트리의 분양가는 인근 혁신도시 대비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됐다. 계약금은 10%이며, 중도금 60%는 무이자 대출로 금융 부담도 낮췄다.

당첨자 발표는 5월 11일이고, 정당계약은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계약 후에는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완주이서 신일 해피트리는 남향 위주의 판상형 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좋고, 전 가구 4Bay 맞통풍 설계로 개방감도 높였다. 가구 내에는 팬트리와 알파룸(일부가구), 드레스룸, 파우더룸, 테라스(일부가구)를 마련해 공간의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또한 단지 내부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휴게공간,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독서실 등이 조성된다.

반경 1.5km 이내에는 이서초등학교와 삼우중학교,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등의 교육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행정복지센터, 파출소, 우체국, 문화체육센터 등의 관공서와 고속버스정류소(애통리정류소), 농협하나로마트, 배꽃뜰작은도서관, 모다아울렛 등 생활편의시설이 밀집돼 있다.

인접한 콩쥐팥쥐로를 통해 전주시 최대 상권으로 불리는 서부신시가지로 10분대에 진입이 가능해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기관과 기업체들이 이 밀집돼 있는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도 가깝다.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콩쥐팥쥐로를 비롯해 호남고속도로(서전주IC), 호남로, 새만금북로를 이용하여 익산, 군산, 김제, 정읍 등 인근도시로 이동이 수월하다. 오는 2023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까지 개통되면 전북 서부권을 아우르는 교통의 요충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한편, 견본주택은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일대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3년 9월 예정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농업과학기술 진흥 국민의 삶 향상 기여

농진청, 과학의 날 기념
유공 포상 9건 수상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병저항성 유용 육종 소재 발굴(국립농업과학원 박상렬 연구사) ▲우리밀 싹의 복합기능성 원천기술 확보(국립식량과학원 김현영 연구사) ▲'임금님표이천쌀' 원료곡을 대체할 국산 벼 품종개발(국립식량과학원 현응조 연구사) ▲노지 밭작물 자동 물관리 기술 개발(국립식량과학원 이상훈 연구사) ▲원예작물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확 후 저장기술 개발(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정수 연구사) ▲한우 암소 개량(OPU) 수정란 생산체계 확립(국립축산과학원 조상래 연구사) 등 6명의 연구원이 받았다.

제55회 과학의 날을 맞아 농촌진흥청이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1점, 장관 표창 7점 등 총 9점의 과학기술진흥 유공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를 북돋워 과학기술 혁신에 기여하고자 해마다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과학자를 발굴, 포상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올해 농업생명자원 보존과 현장·수요자 중심의 기술 보급을 통해 농가 소득을 올리고 농업 경쟁력을 키우는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총 9명이 수상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대통령 표창은 가축 축종별 동결정액 생산, 가금 종축 복원 및 수정란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해 유전자원 생산·보존 기술혁신에 기여한 공로로 국립축산과학원 김성우 연구사가 수상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은 조남준 연구정책국장은 "농촌진흥청은 농업 연구, 개발을 주도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실용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농가소득 향상과 농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농업기술과 정보기술을 융·복합한 농업의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농업과학기술이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55회 과학의 날 기념식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진흥유공 정부포상' 시상식과 함께 열렸다.

/김윤상 기자

취약계층 아이들의 금융·경제 멘토… '신협 어부바 멘토링'

멘토링 후원금 6억4000만원 전달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지난 15일 개최된 신협 어부바 멘토링 '멘토 역량강화 교육' 내 멘토링 후원금 전달식.

신협사회공헌재단(이사장 김윤식, 이하 재단)이 올해 7회를 맞는 '신협 어부바 멘토링' 사업 시작에 앞서 최근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권 신장을 위해 6억4,000만원의 멘토링 후원금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신협 어부바 멘토링'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신협사회공헌재단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175개 신협과 182개 아동복지시설이 함께 협약을 맺고 사업 참가 기관으로 나선다.

올해 재단은 '어부바 멘토링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23% 증가한 8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해, 사업 영역을 넓히고 참여를 활성화한다. 참가 기관의 범위를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복지시설로 확장해 금융·경제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신협 어부바 체험수기 공모전'을 확대해 멘토와 멘티의 참여 의욕 및 만족도를 더 높일 예정이다.

사업에서 신협 임직원은 '어부바 멘토'로서 시설 내 취약계층 아동에게 경제·금융 교육, 신협 견학, 직업 체험 등의 다양한 멘토링을 제공한다. 작년 기준 총 4,178명의 아동에게 1,185회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해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 지식을 전달했으며, '어부바 멘티' 아동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한 재단은 매년 멘토링 참가 신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멘토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2일, 15일 각각 서울과 대전에서 총 2회를 진행했다. 멘토의 역할을 수행할 때 명확한 목적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멘토링의 기본개념, 경제교육 교안 및 교구 활용법 등 다양한 기술과 방법을 전달한다.

수혜 아동에게는 총 5,000부의 경제·금융 교재와 1,000세트의 금융 보드게임을 선물한다. 해당 교재, 교안 및 교구는 재단과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신협만의 금융교육 특화 콘텐츠다. 협동조합 소개, 계획적인 소비 생활, 안전한 금융 생활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으며, 이 내용을 토대로 신협 멘토가 직접 멘티 아동에게 금융·경제교육을 제공한다.

우욱현 재단 상임이사는 "신협의 맞춤형 금융 교육지원을 통해 많은 아동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희망차게 꿈을 찾아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지역사회 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3월 전북수출, 러 수출 감소 속 월 수출액 7년만에 최고치

우크라 침공 여파로 러 수출 전월비 1/3 수준… 미국 수출은 크게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준우)가 발표한 '2022년 3월 전라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1%가 증가한 7억6,969만 달러, 수입은 8.0%가 증가한 5억7,427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무역수지는 1억9,542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별 수출액 기준으로는 2015년 3월에 7억9,878만불을 기록한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정밀화학원료, 동제품, 합성수지가 높은 수출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한 정밀화학원료($8,204만, 48.2%)는 최근 동물사료용 아미노산(라이신)의 수요 확대와 가격 강세로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동제품($7,070만, 34.9%)과 합성수지($6,658만, 6.7%)도 중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견조한 수출 상승세를 보였다. 또한 3월 전북 수출 품목 중 알루미늄($2,883만, 80.2%) 수출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조치와 러시아전쟁의 여파로 알루미늄 가격이 1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점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국가별 수출실적은 미국($1억 6,124만, 30.3%), 중국($1억 5,034만, -11.1%), 일본($5,107만, 31.8%), 베트남($4,200만, 2.7%), 폴란드($3,425만, 2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농기계($3,857만, 49.7%), 중국은 동제품($3,287만, 93.6%), 일본은 합성수지($714만, 20.1%)가 각각 최대 수출품목으로 나타났다. 다만 3월 러시아 수출은 $717만불에 그쳤는데, 이는 직전월인 2월($2,109만)에 비해 약 66%가 감소한 수치이고 전년 동월($955만)과 비교해서는 약 25%가 감소한 것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박준우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올해 1분기 전북지역 수출은 전년도 동기간 대비 25.2%가 성장하며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인 18.1%를 상회하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인다"라며 "정밀화학원료, 동제품 등 기존 수출 강세 제품 외에도 농기계, 알루미늄, 식품 등 새로운 제품들의 수출이 증가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등이 원자재값 상승,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NH농협 남원시지부, 영농발대식·농촌일손돕기

묘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육묘작업을 지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NH농협 남원시지부는 22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부족 해소와 풍년농사 기원을 위해 영농지원 발대식과 농촌일손돕기를 진행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NH농협 남원시지부 권오정 지부장, 전북농협 농촌지원단정현주 단장, 농신보남원센터장 남용수, 농협자산관리 전북지사장 조인갑, 지리산농협조합장 정대환 등 임직원 총20여명이 참여했으며, 발대식 후 아영면 지리산농협 벼 육

전북신보, 익산 서동시장서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용우)은 금융복지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과 '이동형 금융복지지원서비스'를 지난 21일 익산 서동시장에서 진행했다.

금융복지종합지원센터는 지역관할경찰서 및 도내 시·군청과 합동하여,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각종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동형 금융복지지원서비스는 전북신용보증재단 내 금융복지종합지원센터가 주축으로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합동하여 도내 금융복지 상담 접근성이 부족한 금융취약계층 및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 등 채무조정 상담과 영세소상공인 보증지원 상담, 정신건강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과 상가방문교육이 함께 진행된다.

전북신보 유용우 이사장은 "이동형 금융복지지원서비스를 확대해 금융취약계층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청취해 금융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캠페인을 통해 사기 피해로 인한 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형 금융복지지원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jbcredit.or.kr)와 금융복지종합지원센터(063-230-3333[내선6] 또는 063-230-3399)에 문의하면 된다.

/최대희기자